

전북현대, 아시아 정상 탈환 노린다

내일 알아인 상대로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2차전 비기기만 해도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우승

10년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을 노리는 전북현대가 마지막 승부를 펼친다. 전북현대모터스는 내일 오후 11시25분(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알아인의 하자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알아인(아랍에미리트)을 상대로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2차전을 갖는다.

지난 19일 안방 전주에서 열린 1차전에서 레오나르도의 2골 활약에 힘입어 2-1 역전승을 거둬 우승에 성공 다가가았다.

전북은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오른다. 패할 경우는 복잡해진다.

0-1로 지면 원정 닥점 원칙에 따라 알아인이 우승이다. 1-2로 패하면 연장 승부를 치러야 한다.

알아인이 전주 원장에서 1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전북 입장에서는 2차전에서 지더라도 최대한 많은 골을 넣는 게 중요하다.

코칭스태프는 닥점(다치고 공격)을 예고했다.

최강희 감독은 "1차전에서 무실점 승리를 원했지만 1골을 내줬다"면서도 "꼭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원장에서도 이긴다는 생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우리도 원장에서 골을 넣을 좋은 선수들은 많다고 말했다.

1차전에서 2골을 넣은 레오나르도, 교체 투입과 함께 도움을 기록하며 분위기를 바꾼 이동국, 김신욱, 김보경, 이재성 등 주

축 라인업에 이상이 없다. 경고누적으로 1차전에서 결장했던 중앙 수비수 조성환도 돌아온다. UAE는 원장이지만 전북이 최근 2년 동안 동계 전지훈련을 가진 곳으로 선수들에게 익숙한 환경인 점이 긍정적이다.

이동국은 "2년 연속으로 UAE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보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그 곳에서 할 줄 알고 그랬나보다"며 "꼭 우승트로피를 들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선수단은 1차전이 끝나고 하루 뒤인 20일 밤 UAE 알아인으로 떠났다. 알아인의 홈 텃세 때문에 예정된 곳에서 적응훈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분위기에는 지장이 없다.

오마르 압둘라흐만은 중심에 있는 알아인은 우승을 위해 2차전에서 매우 공격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안방 이점도 기대하고 있다.

이동국은 "우리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알아인이 홈에서 더 강력한 것을 보여줄 것이다.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전술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 침착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최 감독은 "원정이 꼭 불리하다고 보진 않는다. 알아인의 경기장을 가봐 낯설지 않다. 기구나 시체에 잘 적응하고, 준비한 잘하면 충분히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지난 19일 안방 전주에서 열린 1차전에서 레오나르도의 2골 활약에 힘입어 2-1 역전승을 거둬 우승에 성공 다가가았다.

LPGA 투어 올해 우승자 평균연령 22세

2016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들이 주를 잡았다.

24일(한국시간) LPGA 홈페이지 통계에 따르면 올 시즌 LPGA 투어 우승자들의 평균 나이는 22.3세다.

US여자오픈 우승자 브리트니 랭(미국·30세10개월18일)을 제외하고 모두 30세 미만의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했다.

20대 선수들이 25승을 쓸어 담았다. 10대 선수들의 우승도 7승에 달한다.

30세 이상 선수들 중에는 랭을 제외하고는 단 한명의 선수도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다.

메이저대회 위민스 PGA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브룩 헨더슨(캐나다·18세9개월2일)이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상위 101위 선수들 중에서 30대 이상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다. 1위 리디아 고(19·뉴질랜드), 2위 에리아 쩌타누간(21·태국), 3위 진인자(22) 등 '뿔'은 20대 초반이다. 4위 경산(27·중국), 7위 박인비(28), 10위 유소연(26)을 제외하면 10명 중 7명은 25세 미만의 비교적 어린 선수들이다.

/김민근기자

바르셀로나, 13시즌 연속 챔스 토너먼트 진출

FC바르셀로나(스페인)가 13시즌 연속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무대를 밟는다.

바르셀로나는 24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의 셀틱 파크에서 열린 2016~2017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C조 5차전에서 셀틱(스코틀랜드)을 2-0으로 꺾었다.

바르셀로나는 승점 12(4승1패)로 1위를 유지하며 남은 한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16강행을 확정했다.

리오넬 메시는 홀로 두 골을 퍼부으며 승리에 앞장섰다. 같은 조의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는 보루시아 뮌헨(독일)과 1-1로 비겼다. 승점 8(2승2무1패)을 기록한 맨체스터 시티는 바르셀로나에 이은 2위로 토너먼트 진출권을 손에 넣었다.

D조에서는 '독일 최강' 바이에른 뮌헨이 FC 로스토프(러시아)에 2-3으로 탈미를 잡았다.

A조의 파리생제르맹(프랑스)과 아스날(잉글랜드)은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두 팀 모두 3승2무(승점 11)를 기록하면서 A조 1,2위는 마지막 경기에서 가려지게 됐다.

B조의 운명 또한 최종전에서 결정된다. 나폴리(이탈리아)와 벤피카(포르투갈)가 승점 8로 1,2위를 형성한 가운데 베식타스(터키)가 1점 뒤진 3위로 바짝 추격 중이다.

/김민근기자

'연예계 마당발' 장시호, SNS서 화려한 인맥 과시

유명 가수·배우 등과 자주 어울려

최순실(60·구속기소)씨 조카 장시호(37·구속)씨가 평소 연예계 인사들과 자주 어울렸음을 드러내는 정황이 나와 주목된다.

장씨는 자신의 연예계 인맥을 통해 CF감독 차은택(47·구속)씨와 인연을 맺었고, 이후 이모인 최순실씨에게 차씨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3일 뉴시스 취재결과 장씨는 평소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예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주 올렸다. 연예계 종사자들과 막역한 사이였다는 점을 주변에 과시했던 것이다.

장씨가 SNS에 올린 사진 중에는 국내에서 누구나 알만한 유명 가수 A씨와 한때 인기 절정이었던 혼성그룹 멤버 B씨, 영화배우 C씨, 그리고 예술계 통 출신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방송인 D씨 등이 등장한다.

장씨의 아들(9)은 최고의 여배우로 명성을 날렸던 E씨의 아들 F군과 돈독한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0대인 F군과 장씨 아들은 제주도에서 종종 시간을 보냈다.

장씨 아들은 평소에도 F군을 친형처럼 따랐다고 한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도 SNS에 올라와 있다.

장씨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38) 스포츠토토 빙상단 감독과도 오랜 친분을 맺었다.

이 감독은 장씨가 세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설립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설립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최순실씨 언니 최순득(64)씨의 딸인 장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장씨는 SNS에 이 감독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이십년동안 변치않은 우정' '아들의 스승이자 든든한 삼촌' '결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

다'라고 소개한 바 있다.

해당 SNS 계정은 약 3주 전에 폐쇄됐다. 장씨는 지난 21일 직권남용,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을 횡령하는 등 최씨를 등에 업고 각종 정부 사업 이권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처럼 대학에 '특별 진학'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고교 시절 3년 내내 최하위 성적을 거두고도 국제 스키대회 경력을 앞세워 1998년 연세대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이다.

/뉴시스

조정석·도경수 주연 영화 '형' 박스오피스 2위 진입

조정석·도경수 주연 영화 '형'이 전야 개봉으로 7만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모아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24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형'은 전일 오후 5시부터 743개관에서 2148회 상영, 7만5888명이 봐 신비한 동물사전(14만650명)에 이어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다. 이날 매출액은 5억7400만원, 매출액 점유율은 25.1%였다.

영화는 예매 순위에서도 2위에 올라가며 무난한 흥행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형'은 24일 오전 8시 현재 예매 관객수 5만9541명, 예매 점유율 29.9%를 기록 중이다.

1위는 '신비한 동물사전'으로 예매 관객수 7만2548명, 예매 점유율 35.9%다. 영화는 사기 전과 10범의 형과 유도 국가대표 선수 동생의 이야기를 다룬다. 형은 동생이 경기 도중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핑계로 가석방돼 15년 만에 동생을 찾는다. 형 '고두영'은 조정석, 동생 '고두영'은 도경수가 연기했다. 연출은 뱀발의 기병(2006)을 만든 권수경 감독이 맡았다.

/뉴시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실로 1482 / 063) 320-0114